

KT, MS와 AI 역량 끌어올린다... 인공지능 전환 박차

MS AI 투어 인 서울

파트너십 결과·AX 추진 전략 제시
AI 커스텀 모델 등 6종 솔루션 공개
'AI 스کیل링 이니셔티브 추진' 발표
대기업 경영진과 'AX 리더 씨밋'

KT가 마이크로소프트(MS)와의 파트너십을 강화하며, 국내 AI 혁신과 역량 제고에 속도를 낸다.

KT는 26일 서울에서 열린 '마이크로소프트 AI 투어 인 서울'에 참가해, 지난해 9월 체결한 MS와의 전략적 파트너십 진행 성과를 공개하고, 교육 부문 협력을 통한 국가 AI 경쟁력 강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앞서 KT는 이달 초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MWC25' 기자간담회를 통해 올해 대한민국의 AX(인공지능 전환)을 선도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번 AI 투어에서는 별도 전시관



지난 25일 KT 광화문 사옥에서 김영섭 KT 대표(왼쪽)가 마이크로소프트(MS)의 사티아 나델라 CEO 겸 이사회 의장과 악수를 나누고 있다. /KT

을 마련해, 전사적 파트너십 실행 결과와 함께 국내 산업계의 AX 추진 전략을 제시했다.

KT 전시관은 프리미엄 파트너 존에 2개 부스로 운영됐다. 이 자리에서는 ▲

한국형 AI 커스텀 모델 ▲보안 강화형 퍼블릭 클라우드 'KT 시큐어 퍼블릭 클라우드'(KT SPC) ▲탄소 배출량 관리 AI 어시스턴트 ▲사내 업무 혁신 사례 ▲서비스제공형GPU(GPUaaS) ▲업

무용 대화형 AI 에이전트 등 6종의 AX 솔루션이 공개됐다.

KT와 MS는 AI 교육 분야 협업 계획도 발표했다. 이날 기조연설에 나선 사티아 나델라 마이크로소프트 CEO는 KT와 함께 'AI 스کیل링 이니셔티브'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AI 교육을 확대해, 한국의 AI 리더십 수준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양사는 이미 AI 교육 센터 설립과 전문 교육 커리큘럼 제공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한 상태다.

KT와의 파트너십 주요 성과로는 내부 혁신, 솔루션 개발, 시장 진출 등이 소개됐다. KT는 MS와 협력해 사내에 AX사업 전문 조직 'AX 딜리버리 전문센터'(가칭)를 출범시키고, 국내 산업계 전반의 AX 혁신을 가속화할 계획이다.

KT는 올해 2분기 상용화를 목표로 '한국형 AI'를 MS와 공동 개발 중이다. 한국형 AI는 한국인의 사고방식과

정서를 이해하고, 역사·철학·사회를 학습한 AI를 의미한다. 양사는 MS의 차세대 AI 모델 개발 로드맵에 맞춘 협력 방안도 함께 논의 중이다.

한편, AI 투어 하루 전인 지난 25일에는 김영섭 KT 대표와 사티아 나델라 CEO가 서울 광화문 KT 사옥에서 만나, 산업계 AX 가속화 및 AI 스کیل링 이니셔티브를 포함한 양사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KT와 MS는 주요 대기업 경영진과 함께 'AX 리더 씨밋'도 개최했다. 행사에서는 산업 간 협업을 통한 AI·클라우드 분야 시너지 방안이 논의됐다. KT는 글로벌 빅테크 솔루션을 활용해 성과를 낸 해외 사례와, 이를 국내 환경에 맞게 적용하는 전략을 공유했다.

KT는 향후 AX 리더 씨밋을 정례화해, 업계 간 자유로운 소통의 장을 만들고 국내에 'AX DNA'를 이식하겠다는 계획이다. /김서현 기자 seoh@metroseoul.co.kr

“배달 플랫폼, 규제보다 혁신·재투자 필요”

'K-플랫폼 가치 조망' 주제로 토론회
배달앱으로 폐점률 ↓, 상권 활성화 ↑
글로벌 진출 위한 정책환경 필요

국내 외식산업 성장을 이끈 배달플랫폼에 시장 혁신과 재투자가 가능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지난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는 '차세대 유니콘, K-플랫폼의 가치를 조망한다'를 주제로 전문가 토론회가 개최됐다. 국회 디지털경제3.0 포럼이 주최하고, 스타트업얼라이언스가 주관한 이날 행사에는 다양한 업계 및 학계 전문가, 교수 등이 참석해 국내 플랫폼 성장에 산업 전반에 미친 영향과 미래 방향성에 대해 설명했다.



을 통한 한국 외식산업의 성장: 왜 규제보다 진흥인가'를 주제로 발표했다.

경나경 교수는 "배달 플랫폼은 이용업주에 추가 매출 증대, 수익성 개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외식 산업 전반의 성장을 이끌었으며 코로나, 불경기 등 어려운 상황에서도 외식시장 위축 및 상권 쇠퇴를 방어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면서 "여러 국내 연구와 데이터 분석 결과를 보면, 배달앱이 폐점률을 낮추고 상권 활성화에 기여한 것을 알 수 있

다"고 주장했다.

경 교수는 "배달플랫폼 규제는 배달 앱 업체뿐만 아니라 외식 산업과 시장 전체의 성장 및 발전을 막을 수 있다"면서 "플랫폼이 혁신과 서비스 발전을 통해 시장 전반을 성장시키고, 스스로 재투자를 확대해 시장 참여자들의 이익이 함께 늘어날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기대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센터장은 "IT 플랫폼 기업들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 성장해왔고, 이는 시장 전반의 성장으로 이어졌다"면서 "국내 플랫폼 산업이 한 단계 더 도약하고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하기 위한 정책적 환경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hjk1@

네이버·카카오, 주주총회 안건 전부 가결

양사 정기 주주총회 동시에 열려
이해진 네이버 창업자 전격 복귀
네이버·카카오 대표, 연임 성공

네이버와 카카오의 정기 주주총회가 같은 날 나란히 열렸다.

26일 동시에 개최된 주총을 통해 이해진 네이버 창업자(현 글로벌투자책임자·GIO)는 네이버로 전격 복귀한다. 포털 업계 최고 매출을 올린 최수연 대표도 연임에 성공했다.

카카오의 정신아 대표도 연임에 성공했다. 그러나 카카오 주주총회와 함께 주총 회장 밖에서는 카카오 콘텐츠CIC 다음(DAUM) 분사와 카카오VX 매각에 반대하는 구성원들의 피켓 시위가 벌어지기도 했다.

네이버는 26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네이버 그린팩토리에서 열린 제26기 주주총회에서 이해진 창업자의 사내이사 선임 건과 최 대표의 사내이사 재선임 건 등 상정된 안건을 모두 통과시켰다.

네이버 이사회는 인공지능(AI) 대전환 시대 중장기 성장 전략을 세우고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인물로 이해진 창업자의 능력을 높이 샀다. 그는 인터넷과 모바일 산업이 변화하던 때를 비롯, 주요 패러다임 전환기에 독자 전략으로 네이버를 안정적으로 끌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에 네이버 이사회는 이 창업자를 사내이사 후보로 추천, 금일 주주총회를 통해 이사 선임을 승인했다. 이 창업자는 이날 이사회 의장으로도 선임됐다.

최수연 대표는 지난해 IT 포털 기업 최초 연매출 10조원을 기록한 만큼 연임이 사실상 확정됐었다. 그는 네이버의 AI 개발 및 활용 방안 수립을 진두지휘하며 네이버의 AI 전략인 '온 서비스 AI(On Service AI)' 방향성을 정립했다. 온 서비스 AI는 네이버의 AI 원천 기술과 다양한 사업 포트폴리오를 연결하는 전략이다.

이밖에 이번 주주총회를 통해 네이버는 김이배 덕성여자대학교 회계학 교수



이해진
네이버 창업자



정신아
카카오 대표

를 신규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했다. 노혁준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회 재선임됐다. 이어 ▲제26기(2024년) 재무제표 승인의 건 ▲사내이사 선임의 건 ▲사외이사 선임의 건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이사 보수 한도 승인의 건 등 총 5개의 안건이 모두 통과됐다.

카카오도 제주도에서 열린 제20기 정기 주주총회에서 재무제표 승인, 이사 선임, 보수한도 승인 등 상정된 안건을 모두 통과시켰다.

이번 주총에서 정신아 카카오대표는 연임에 성공했다. 또 사외이사 최세정 고려대 미디어학부 교수와 박새롬 울산과학기술원 산업공학과 조교수의 재선임했다. 김선욱 법무법인 세승 대표변호사를 사외이사 겸 감사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됐다.

보수 한도를 80억원에서 60억원으로 한도를 낮추는 안건 또한 가결됐으며, 정관변경을 통해 주주총회 소집지에 경기도 성남시를 추가했다. 그동안 카카오는 비교적 접근성이 떨어지는 제주에서 주총을 진행하면서 '감금이 주총'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정 대표는 카카오 분사 추진 의혹에 관해 "지금은 좋은 회사를 만드는 게 중점"이라며 "현재 시점에서 매각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다음 분사는 기존의 분사와 다르다"며 "기존 신규 사업에 따른 분사라거나 카카오 특과의 의존성이 높은 데도 사업 성장 동력을 위한 분사를 진행한 바도 있다"고 설명했다.

/김서현 기자

카카오모빌리티 카카오 T 편의성 개선 제미나이 플래시 적용

카카오모빌리티는 '카카오 T' 앱에 구글 인공지능(AI) 서비스 '제미나이 플래시'를 적용해 사용 편의를 개선했다고 26일 밝혔다.

카카오모빌리티에 따르면 지난달 20일 제미나이 플래시를 기반으로 '카카오 T 퀵·배송'에 'AI 주소 자동 붙여넣기' 기능을 탑재한 뒤 접수 완료까지 걸리는 시간이 평균 24% 줄었다.

AI 주소 자동 붙여넣기는 사용자가 메시지에서 주소, 수신인, 연락처 등의 정보가 포함된 긴 문장의 텍스트를 복사한 다음 카카오 T 퀵·배송 서비스 화면을 띄우면 AI가 필요한 정보만 인식해서 자동으로 입력하는 기능이다.

필요한 정보와 불필요한 데이터가 뒤섞인 텍스트 성분을 분석해 구조화하는 '파싱(parsing)' 프로세스를 AI 기술로 구현해 편의성을 높였다. /김현정 기자

SKB, 양자내성암호 전용회선 사업 본격화

한국전력기술에 구축 완료

SK브로드밴드가 양자내성암호(PQC) 전용회선 사업을 본격화한다.

SK브로드밴드는 한국전력기술에 PQC 전용회선 구축을 완료했다고 26일 밝혔다. 지난 2023년 상용서비스 출시 이후 첫 사업 수주다.

이번 PQC 전용회선 구축으로 한국전력기술 본사와 현장 사무소 전체 구간을 오가는 중요 데이터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게 됐다.

양자암호통신 기술은 양자키분배(QKD)와 PQC로 구분되는데, 이번 사업 수주에 PQC 전용회선이 핵심이다.

QKD는 양자 역학 특성을 이용해 송수신 양방향에서 암호키를 생성·분배하는 하드웨어 기반 기술이고, PQC는 양자 컴퓨터가 풀기 어려운 수학적 난제를 활용한 소프트웨어 방식으로 거리 제약 없이 제공된다. QKD를 활용해 매출이 발



SK브로드밴드 구성원이 판교에 위치한 양자 테스트베드에서 PQC가 적용된 암호전송장비를 소개하고 있다. /SK브로드밴드

생한 국내 사례는 아직 없는 상황이다.

PQC 전용회선의 경우 미래 양자컴퓨터 해킹 위협에 대비할 수 있다. 금융, 의료, 국방 등 보안이 중요한 산업에 양자암호통신 도입이 확대될 전망이다. /김서현 기자